

“본격 100세 시대 맞아 범도민사회 관심 가장 중요”

설맞이 맞춤형봉사서비스 동행취재

“아이고, 무시거 영 하영 햄시니, 다 못 먹는다게.”

장순선(87) 할머니의 입에서는 친정 엄마와 같은 잔소리가 쏟아진다. 식칼을 손에 쥔 생활지원사 이정숙(61)씨는 그런 할머니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마에 올려둔 재료들을 아낌없이 손질해 나간다.

18일 오전 11시 취재진은 제주시 용담동 소재 할머니 장씨의 자택을 찾았다. 할머니의 집 댕들 위에는 일찍부터 장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이씨의 신발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날은 이씨가 반조리 식품인 떡국 키트를 활용해 명절 음식을 장씨 할머니에게 대접하는 날이다. 먹기 좋은 크기로 이미 손질돼 나온 한우 양지고기를 참기름에 달달 볶은 뒤 쫄면 사골육수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물에 미리 불려놨던 떡을 냄비에 집어넣고 송송 썬 대파와 달걀을 풀어 푹푹 끓이니 제법 모양이 갖춰졌다.

음식의 마무리, 소금간을 맞추는 건 장씨 할머니가 담당했다. 젊은 시절 한 식집을 운영했다던 할머니는 “간은 눈대중이야”라며 평소 몸에 익은 대로 소금을 툇툇 툇툇 놓는다. 한 손갈 간을 보더니만 “국물이 기가 막히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장씨 할머니는 김치냉장고에서 자신이 직접 담갔다는 김치를 꺼내 들었다. “김치가 좀 시어 버렸어”라며 접시에 내놓기를 주저했지만, 담백한 국물 요리에 는 어디 잘 익은 김치만 하겠는가.

밀반찬과 음식을 그릇에 담고 김을 잘

게 잘라 고명으로 얹히고 나니 제법 명절 분위기가 났다. “떡국에는 이 양지고기 만한 게 없어. 육질이 딱딱한 것 같아도 씹다 보면 구수한 맛이 일품이지.” 장씨 할머니는 떡국 맛을 보며 자신만의 요리 비결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고 나니 할머니의 입가에도 모처럼 만의 미소가 피었다.

이정숙씨의 직업은 생활지원사다. 그는 일주일에 1시간씩 총 4일을 이곳으로 찾아와 장씨 할머니의 말동무가 돼 준다. 장씨 할머니는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중점’으로 분류된다. 이씨

홀로사는 어르신 제주 8239명...코로나로 후원 열기마저 ‘시들’

생활지원사 이정숙씨 배정받은 16분 중 떡국 대접 두분에 그쳐

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일반 대상자와는 달리 걸음이 힘든 장씨 할머니에게 손과 발이 돼 주곤 한다.

이씨가 장씨 할머니를 만난 건 4년 전이다. 오랜 세월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이씨가 그해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로 직장을 옮기면서 할머니의 집으로 배정받았다. 이씨는 장씨 할머니 외에도 총 16명의 어르신을 매주 보살핀다.

이씨는 친정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산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공감할 줄 알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도 어느새 천직이 돼 있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하기에 이씨는 그렇게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가 됐다.

이씨는 “어르신들 중에는 아무래도 몸



생활지원사 이정숙씨가 설을 앞둔 18일 정성스레 떡국을 끓여 장순선 할머니께 대접하고 있다.

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며 “아파본 사람들이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하기에 선뜻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이씨가 지원하는 어르신들 중 이번 떡국을 직접 끓여 준 어르신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떡국 키트를 마련하는데 예산을 지원받지만, 모두에게 대접할 순 없는 노릇이다. 떡국을 끓여 줄 인력도, 준비된 재료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각종 단체에서 마련한 후원 물품을 고루 선물한다.

제주도내 홀로 사는 어르신은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5370명, 서귀포시 2869명 모두 8239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를 총 9개 권역(제주시 6개, 서

귀포시 3개)으로 나눠 각 기관에 맞춤형 봉사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중된 지역은 제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용담·삼도·일도동이다. 이씨가 몸담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가 그 관할이다. 이 기관은 여타 센터에 비해 그나마 후원물품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줄 있던 단체 행사가 중단되자 후원도 예년에 비해 훨씬 줄었다. 그나마 후원금 유치를 위한 센터장의 발품 덕에 기관이 유지되는 실정이다.

이웃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이다.

김경선 센터 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듯 우리 사회가 이웃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5G로 빠르게 즐기세요!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 telecom atleh kt LTE ME

OK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51-11 / ☎ 763-6016